

순천 낙안읍성에서 ‘전통 공연’의 향연 펼쳐진다

6월 한 달간 ‘주말 상설 공연’
가야금병창·퓨전국악 등 다채
제11회 전국 국악대전도 개최
“전통 예술 계승·대중화 모색”

전라남도 순천시가 대표 관광지이자 역사와 민속, 생태가 어우러진 낙안읍성에서 6월 한 달간 다채로운 주말 상설 공연을 선보인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다채로운 주말 상설 공연을 개최한다.

낙안읍성 객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전통 공연단체들이 판소리,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취타대, 전통무용 등 보기 드문 전통예술 공연을 펼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주말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동헌에서 창극 ‘김빈길 장군’이 한 시간 동안 무대에 올랐다. 낙안면 출신인 양혜공 김빈길 장군은 조선 태조 6년(1397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낙안읍성의 토성을 축조했으며,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창극에서는 김빈길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흥미롭게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은 ‘제11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국악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등부부터 명인부까지 총 6개 부문에서 판소리와 민요 경연을 펼치

는 자리로, 14일은 예선 경연, 15일은 본선과 시상식, 대회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국악대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11회를 맞아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악대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낙안읍성 판소리 보존회가 주관해 개최한다.

대회 대상 훈격은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전라남도교육감상, 순천시장상이며 각종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낙안읍성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기능인 상설 체험장 8곳, 전통 혼례

체험, 농촌체험 등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 낙안읍성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리팀(061-749-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6월의 휴일에 낙안읍성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만끽하고 읍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악대전은 우리의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인 판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판소리의 본고장 순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인 만큼 많은 국악인의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K-water, ‘회혼식’ 진행 주암댐 인근 주민 대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주암댐 주변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지 60주년을 맞이한 14쌍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회혼식’을 지난 5일 보성 천연염색공예관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회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지역 의원 및 유관기관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부부간 사랑고백 및 자녀 영상편지 등이 상영되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회혼식 주례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회혼식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어르신들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 보성장흥강진)은 “회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전을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6~8월 집중… 자체 점검반 운영

전라남도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폐수·대기 배출업소, 개인하수·가족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 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실시 여수시, 시민 경각심 고취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시민과 관광객 1만76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은 일상 속 위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QR코드와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항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 교육을 제공해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 요령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진단 결과를 수합해 연령·지역·재난유형별 분석을 거쳐 향후 예방사업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시민 의견 수렴 실시

전라남도 광양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설계 중인 ‘작지만 의미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식에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390만원에 이르며, 이러한 높은 예식 비용은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형식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스몰웨딩’ 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규모·간소한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관내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에는 5쌍의 예비부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비부부로, 예식 장소는 시청 시민홀, 주민자치센터, 배알도, 서천변 등 공공장소는 물론, 관내 일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총 예식 비용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된 의견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이 지난 5일 도양읍 북촌지선에서 감성돔 종자 10만9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감성돔 방류

전라남도 고흥군이 지난 5일 도양읍 북촌지선에서 감성돔 종자 10만9000마리를 방류하며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의원, 고흥군수협 조합장, 고흥군 기관·단체장협

의회 회원, 어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방류된 감성돔은 전장 5~6cm 내외의 건강한 치어로, 생존율과 자원 회복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선정

74억원 규모 사업비 확보 회진면 정주여건 개선 등

전라남도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7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회진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장흥군은 현장답사, 자료수집, 주민 설명회 개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진행해 회진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면밀히 발굴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지역 공동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장흥군 제공

체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열의가 하나로 모아

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유치에 뛰어 들어 농촌지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